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공연 때 옷 2벌 필요한 이유 아세요?”

인구 10만 가량의 작은 도시에서 불교합창단이 활동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위 사찰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제 보리수 합창단(단장 임점주)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원이 31

### 지역연합 김제 보리수 합창단

### 찬불가 보급과 각종 봉사 활발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합창단이지만 활동 영역은 다른 합창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보리수 합창단은 지역 내 대표 사찰인 금산사를 비롯해 귀신사, 흥복사, 망해사 등 지역 사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각종 사찰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찬불가를 들려주고 있다.

보리수 합창단은 1999년 김제지역 연합합창단으로 창단됐다. 이들은 창단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1년 현 임점주 단장이 취임하면서 합창단 본연의 임무인 찬불가 보급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와 사회 활

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보리수 합창단은 가족같은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다. 매주 목요일 김제 불교회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연습에는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한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활동하는 가족이 2가족 5명이나 된다. 어머니의 노래에 딸이 피아노를 치고, 손자가 율동을 하는 연습장 분위기는 언제나 웃음이 흘러넘친다.

이런 가족같은 분위기는 무엇보다 단장 임점주(금산씨)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임 단장은 늘 단원들의 가정사를 챙기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단원들의 건강까지 살핀다. 실제로 건강이 나빠진 단원들을 보살피면서 다른 단원들과 함께 치료비를 후원하기도 했다.

보리수 합창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교단체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합창뿐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연초부터 지역의 크고 작은 사찰의 연등을 직접 모두 만들었고, 사찰의 큰 행사 중 하나인 김장 때에도 이들의 활약은 곳곳에서 빛났다. 금산사의 김장때는 이들의 손맛이 금산사 김치맛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



3대가 참여하는 가족적 분위기

지역사회 불교 이미지 제고 기여

다. 사찰 법회 때면 단원들은 커다란 가방을 두 개씩 들고 나타난다. 법회에 참석해 찬불가를 부를 때 입을 단복과 법회 후

신도들의 공양을 챙겨줄 때 입을 단복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점주 단장은 “전·의경 자매결연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매니리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등록 임박해 장학금 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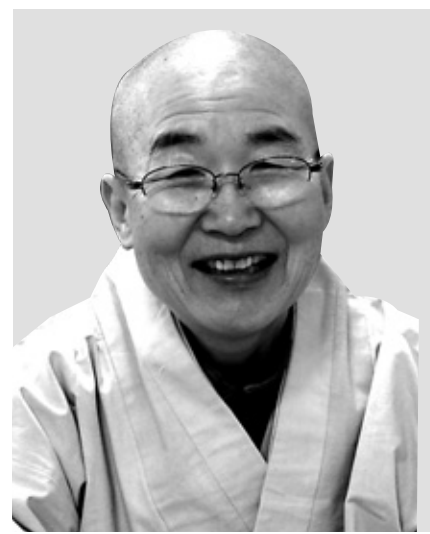
### 폭우 피해에도 장학금 전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한 정읍 성불사(주지 상운)의 소식이 불교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성불암은 8월 9일 폭우가 내리자 사찰에 토사가 밀려와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읍 지역은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성불암은 복구작업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도와 지역 청소년들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성불암 장학회 회원들이 모금한 기금과 성불암의 시급금을 바탕으로 적립돼온 장학금은 정읍고등학교와 열심히 신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성불암 신도회 원형심 회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도량에 토사가 가득한 상



황에서도 모아놓은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도량 복구도 시급하지만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대학교 등록기간이 임박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독도수호에는 남북이 따로 없어야”

### 독도수호범국민운동본부

월드스가회 독도수호범국민운동본부(회장 무송)는 독도수호 결의의 국토순례를 8월 18일 신불산 일원에서 봉행했다.

이번 국토 순례는 최근 일본 자민당 간사 율동도·독도 입도 시도 등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을 규탄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독도수호범국민운동본부 200여 회원이 참가한 독도수호 국토순례 열거는 무더위도 얼어붙게 만들었다.

노덕현 기자

이 날 참가자들은 신불산 정상 해맞이 바위에서 통해 건너 일본을 향해 독도 수호 결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섬나라 침략주의 근성을 버리고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독도수호범국민운동본부 회장 무송 스님은 “독도수호에는 남과 북이 따로 없고 종교와 이념을 넘어 우리국민 모두가 수호해 다음세대에게는 국토분쟁이 없는 국토를 물려주자”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010-9330-6210

### 불심으로 신명나는 어울림

### 조계종 대구·경북 전법단

조계종 대구·경북전법단(단장 본오)이 주최한 지역 불교계 어울림 한마당이 팔공산 씨네80 자동차 극장에서 8월 21일 펼쳐졌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기 마련된 이날 행사는 대구와 경북 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마당 행사장에는 조계종 전법단장인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연창 대구시 정무 부시장 등 지역 각계 초청인사를 비롯해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 선광사, 새 법당 이운법회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불국사 대구포교원 선광사가 새 법당을 마련하고 8월 21일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주지 스님과 지역기관장, 류병선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새법당 이운을 축하했다.

성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사상을 전파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광사 주지 성호 스님은 사찰에서는 드물게 경내에 갤러리를 마련해 불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생활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도심 포교활동을 펼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나눔으로 보살행 실천

### 대한국불교조계종

### 나눔실천승가회 창립

대한국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성보)이 불타의 대자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할 '나눔 실천 승가회' 창립식을 8월 17일 창원시 마산 오동동 사무소에서 봉행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총무원장 성보 스님이 취임했다.

이 날 창립식에는 대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스님을 비롯한 여러 사부대중이 참여해 나눔 실천 승가회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성보 스님은 “나눔실천승가회는 대자



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무연고 영·유아 및 무의탁 노인 수용시설 운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 ‘육조단경’ 특강 경북 고운사

고운사는 각종 스님을 모시고 선 체현관에서 8월 22-26일 육조단경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첫날부터 비구·비구니 스님 200명과 신심 있는 불자 100명이 모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뜨

거운 열의를 나타냈다. <육조단경>은 해능선사가 돈오와 견성을 기치로 남종선을 부각시키는 경전이다.

고운사는 작년부터 해제 때마다 특강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동안겨 해제 강의부터는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 받아 교육 수료시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소아암 고통 함께 나눠요”

###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백혈병 환우 치료기금 500만원과 헌혈증서 4500매, 100만원 상당의 의료용 마스크 지원식을 8월 25일 화순전대병원(병원장 국훈) 병원장실에서 가졌다.

이날 지원된 기금은 6월 개최된 소아암 백혈병 환우를 위한 생명나눔콘서트의 수익금과 콜럼버스영화관을 비롯한 광주지역 생명나눔의집에서 모집한 헌혈증이다.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월에도 360만원의 기금을 1차로 환우들에게 지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호남 불교, 생협으로 포교 대안 모색

###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은 8월 21일 광주 광덕사 대법당에서 ‘저절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하 저절로생협)’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저절로생협’은 사찰을 통한 먹거리 공급부터 사찰요리,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전통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불교적 가치와 사찰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은 향후 광주지역 불자들의 수행과 불교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총회는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과 초대 이사장 지용현 회장을 비롯해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임 후 첫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부처님과 붓다가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영적 가르침과 지구 행성의 미래에 대한 조망!

전 종교인 필독서

# 마이트레야(彌勒) 붓다의 메시지

저자 헨릭제임스 | 출판사 은하문명 | 정가 17,000원 | 판형 신국판

지구촌에 계속 빈발하고 있는 심각한 천재지변과 기상이변들이! 머지않아 출현할 모든 종교가 고대하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영적스승인 미륵불이 말법시대와 급박한 지구의 대변혁기를 맞아 인류에게 계시를 내리다!!

-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인 세계 교사가 긴급히 전하는 가르침과 메시지들 -

<마이트레야(Maitreya)>란 본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서 불교에서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지상에 출현해 중생들을 구원하기로 예언돼 있는 미륵(彌勒) 부처님을 뜻한다. 장차 지상에 도래할 구원불(救援佛)이자 미래불(未來佛)인 미륵에 관한 내용은 '중일 아함경'이나 '미륵 삼부경(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대생불경)' 등의 불교 경전들에 실려져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이 지구의 대변혁기를 맞아 이 시대의 우리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가능한 이유는 1980년대 이래 서구에서 활성화된 '채널링(Channeling)'이라는 영적교신 방법을 통해서이다. 미륵 부처님은 이 책에서 평이한 언어를 통해 우리가 세속적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에서부터 영적입문의 길, 깨달음, 현 지구의 상황과 차원상승 문제, 창조적 근원과 천상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구의 현 <행성 로고스>인 석가모니 붓다의 심오한 메시지도 첨부돼 있다.

“이 지구 행성은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 행성은 인간에 의해 강탈당하고 약탈되고 황폐화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틀림없이 이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바다와 육지, 대기는 오염되고 유독 성분이 가득하다. 인류도 거기에 중독되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다.

게다가 인류는 “개가 개를 먹는” 3차원의 의식(意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3차원적 의식은 경쟁하고 비교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매달려 있다. 마치 공급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부 9장에서 -

고대 마이어엔에 지정된 2012년! 지구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오는가? 2012 지구 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서기 2012년 12월 21일, 동지(冬至)가 마지막 날로 끝나 있는 04억년의 세월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불교의 깊은 교리와 우주적 광보와 천상에서 오는 영적 계시를 통해 2012년 12월 21일 지구와 인류의 대변혁을 다룬다. 각도에서 조망해 준다. 2012년 12월 21일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다. 생존하기 위한 이념 변화의 도식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유목적인 전통의 초기에 관한 인류의 영적진화 문명이 깊이 있게 설명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 21일은 지구의 차원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박래철 지음 / 신국판 / 20,000원

도서출판 은하문명

TEL 02)737-8436, FAX 02)737-8486 (www.ufogalaxy.co.kr)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